

낙농자조금사업은 낙농발전을 위한 낙농인들의 한마음이다



김 남 철

낙농자조금자문위원(농림부 축산경영과장)

일부 지역에서 서로간의 이해관계 문제로 낙농자조금조성에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이것은 낙농산업발전에 적극 동참하지 않고 무임승차 하자는 것으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내년에는 낙농인들에 의해 모인 자조금이 다시 낙농인들에게 배가되어 되돌아갈 수 있도록 자조금사업에 박차를 가하면서 모든 낙농가가 동참하기를 바란다.

한해를 돌아보면 스치고 지나간 일들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지만, 낙농인들은 누구나 한번쯤 낙농자조금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주관으로 낙농인이 주체가 되어 진행되고 있는 낙농자조금사업은 우리나라 낙농산업을 한층 더 향상시켰으며, 새 천년을 맞이하는 낙농가들에게는 자부심을 갖도록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비록 돼지, 닭 다음으로 다소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낙농가들이 참여하여 자조금사업이 이처럼 활발하게 이뤄진 것은 낙농인들에게 커다란 의미를 주는 것이라 하겠다.

'98년 젖소 송아지 가격하락 및 분유재고량 증가 등 폭풍우속에서 경영상태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원유 1kg당 5원씩 3

개월간 모아 자조금을 조성하기로 함에 따라 낙농인들의 먼 장래를 바라보는 안목과 낙농발전을 위한 한마음을 나타낸 것이라 하겠다.

낙농인들이 조성한 약16억6천만원과 8억3천만원의 정부지원을 토대로 한 낙농자조금사업은 '99년 7월부터 TV, 신문, 라디오 등 매체를 통한 "사랑의 우유나누기 운동"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낙농인뿐 아니라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적어도 한번쯤은 김혜수, 차승원의 "사랑의 우유나누기 운동"을 감동스럽게 눈여겨 보았을 것이고, 그에 따른 소비홍보는 단기 또는 장기적으로 많은 영향을 발휘할 것으로 생각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언론매체뿐 아니라 한국국제축산박람회 등 각종 행사를

통해 우유의 효능을 소비자들에게 알림으로써 우유소비 홍보활동을 활발히 해 오고 있다. 이 밖에도 낙농기술강습회, 우유소비행태조사 등 생산에서 소비까지 낙농인들을 위한 다양한 자조금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금년 자조금 운영에 낙농인들이 전적으로 만족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소비홍보뿐 아니라 우유수급 문제 등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좀더 깊숙이 낙농산업에 참여하여 낙농인들이 염려하는 일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

금년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 서로간의 이해관계 문제로 자조금조성에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이것은 낙농산업발전에 적극 동참하지 않고 무임승차 하자는 것

으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내년에는 낙농인들에 의해 모인 자조금이 다시 낙농인들에게 배가되어 되돌아갈 수 있도록 자조금사업에 박차를 가하면서 모든 낙농가가 동참하기를 바란다.

낙농인들도 적극 참여하여 자

조금을 조성하는 것뿐 아니라 부족한 점은 채우고 필요한 것은 추진할 수 있도록 본 사업의 의견을 개진(開陳)하는 등 자조금사업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낙농자조금이 본연의 목적대로 낙농인들을 위해 쓰여질 수 있을 것이다.

낙농자조금사업이 성공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인들, 관련 업체 등이 뜻을 같이 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본 사업뿐 아니라 귀하게서 하시는 일이 해가 갈수록 더욱 번창하기를 바란다. ☺

〈필자연락처: 02-504-9434〉

낙농자조금사업은 낙농가들에게 많은 이익을 안겨 주었다



이 홍 구

낙농자조금자문위원(한국유기공협회 부회장)

연간 원유생산량 약 200만톤, 1998년 6월 1일부터 인하하였다고 치면 200만톤의 12분의 7인 117만톤, 5.4% 인하시 톤당 가격은 29,036원이며 1998년에만도 약 340억원, 1999년도 약 580억원의 혜택을 본 셈이고, 이중에서 약 20억원을 각출하는 것이었는데 무임승차자가 있었다는 것은 한번 깊이 반성해 보아야할 대목이 아닌가 싶다.

낙농자조금사업은 20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을 맞는 분기점에서 국내 낙농산업의 앞날을 한층 밝게 해주는 빛나는 업적으로 후에 기록될 한국 낙농사에 깊이 남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낙농자조금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 분야에 뜻이 있는 인사나 학자들 간에 거론이 되어왔고 학술발표장이나 대토론회에서 발표되곤 하였다. 그러나 국내에서 이렇게

빨리 성사되리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솔직한 표현이 될 것이다.

1997년 말부터 우리나라에 갑자기 불어닥친 IMF한파는 예외 없이 우리 낙농산업 분야에도 암흑의 시대였다. 사료값 폭등, 낙농가 도산, 젓소송아지 도실패기, 수매젓소송아지 생매장, 유가공업체 부도, 분유재고 산적, 우유소비 가두캠페인 주무부장관 앞장 등등 이 모두가 오래 기억될 굵직한 사건들이다. 이러한

고통과 역경들이 낙농자조금사업을 이 땅에 빨리 발붙이게 해준 동기였다고 확신한다.

옥에도 티가 있다고 이 좋은 사업에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았다. 우리나라에도 법으로 자조금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있다. 다만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되어있어 무임승차자가 있을 수 있게 되어있다.

그러나 금년에 시행한 낙농자조금사업은 무임승차자가 있어서는 안 되는 사업이었다. 무임